

첫 번째 증거 :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 읽을 말씀 행 17:16-31
- 주요 내용

오늘은 「노후준비보다 중요한 사후준비!」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들 중 하나님이 지은 만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믿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다 읽을 무렵에는 모두 믿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노후준비보다 무한히 중요한 사후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히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무인도에 가서 다 쓰러져 가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 무인도인데,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집이 한 채 지어졌네!” 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것이 우주와 만물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창 1:1).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롬 1:20).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존하기를 원하셔서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충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일부가 육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39:26-30). 매에 대한 설명은 겨울철이 되어 새매가 남쪽으로 이주하는 것이고, 독수리에 대한 설명은 접근 불가능하고 동시에 먹이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동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물의 세계” 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물과 곤충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자기가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 신기하게 적응하고 생존하는지 모릅니다. 일례로, ‘얼음개구리’ 라 불리는 북미의 숲 개구리는 겨울 내내 몸이 완전히 얼어서 호흡과 심장박동까지 멈추었다가 봄이 되면 감쪽같이 되살아납니다. 한낱 개구리인데 전 세계 과학자 중 아무도 풀지 못한 완벽한 냉동보관과 해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로 가능할까요? 만약 이것이 진화로 가능한 것이라면, 진화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은 벌써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루는 ‘태초에는 공기, 물, 흙, 암석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멸균 처리된 공기, 물, 흙, 암석만 있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무생물이 아닌 생물이 나올 수 있을까? 진화론이 맞다면 생명체가 나와야 하는데 절대 나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 무생물과 생물의 간극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창조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864년 파스퇴르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에 경도된 학자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생명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파스퇴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 을 통해 생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200년간 과학계를 지배해왔던 ‘자연발생설’ (생물은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은 완전히 무너지고,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서 생겨난다는 ‘생물속생설’ 이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완전 허구입니다.

이외에도 창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창 1:11-12, 20-21, 24-25). 이 구절들에 나오는 “종류” 는 ‘교배를 통해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 을 가리키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유전학적 ‘종’ 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각

‘종안에서는 다양성이 가능해서 모든 종에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화론자들은 ‘소진화’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는데 백인종과 황인종과 흑인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에 의해 피부색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 원래 넣어두었지만, 다 나타나지 않았던 유전자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후대에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에서 말하는 ‘소진화’ 는 유전 정보 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진화가 아닙니다.

또 종 내에서 다양한 생물체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나,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대진화 이론을 지지해주는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진화론과 관련되는 여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160명이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 모여 ‘대진화’란 제목으로 회의를 열고 “소진화가 일어난다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진화론자 스스로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또, 만약 대진화가 가능하고 진화론이 맞다면,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서서히 변화되는 중간 형태의 생명체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 형태를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론의 증거로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이 흔적기관(한때는 유용한 기관이었는데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기관)입니다. 오래전에는 이 흔적기관이 200여 종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6개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각각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흔적기관이 아닙니다.

끝으로, 진화론자들은 흔적기관은 종종 말하면서 미숙기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만일 진화론이 맞다면 발달하기 위하여 막 시작하는 미숙기관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을 완성하여 효용성 있는 기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생물이 한 세포로 된 조상으로부터 발달했다면 초기의 생물들은 기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모든 분화된 세포, 즉 사지, 근육, 신경, 혈관 등에서 미숙한 발달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달 중인 미숙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각자 완벽한 기능을 가진 신체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

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거짓이고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진화는 처음에 물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질에서 ‘이성’ 이 나오겠습니까? 또 물질에서 ‘정신’ 이 나오겠습니까? 또한, 물질에서 ‘양심’ 이 나오겠습니까? 나아가서, 물질에서 ‘영혼’ 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것은 돌이 식물을 낳고 식물이 동물을 낳는 것보다 무한히 더 불가능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이 성경의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뒤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느 6:6, 히 3:4, 계 4:11). 그리고 창조가 참 신의 증거, 또는 자격임이 나타나 있습니다(시 96:5, 사 37:16, 45:18). 바울은 창조를 근거로 모든 종교의 신들은 거짓 신이고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증거했습니다(행 17:22-29). 그러므로 천지창조를 주장하지 않는 종교나 신은 모두 거짓 종교요 거짓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참 하나님이 계시므로, 세상 종교들이 무엇을 믿고 무슨 주장을 하든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므로 구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누어봅시다.